



“후배들 분노가 오죽했으면 파업까지 왔나” 75년 입사 박영규 선배 “34년 통신기자가 만든 상황 안타깝다”



워싱턴의 특파원 후배들이 일손을 놓고 있었다. 한국에서 아직 이삿짐조차 오지 않은 한 신입 특파원은 집에 냄비 하나를 덜렁 놓고 파업에 동참했다. 8년 전 정년퇴직한 연합뉴스 원로 기자의 눈엔 특파원 파업이 생경했다.

1975년 입사한 박영규 선배는 이달 중순 미주 여행을 마치고 들른 워싱턴에서 파업 중인 특파원 후배들과 마주했다. 23년 전 연합뉴스 첫 파업의 역사를 쓴 주인공 중 한명이던 박 선배는 후배들의 파업에 놀라면서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 박 선배는 귀국하고서 지난 23일 언론계 원로 75명과 함께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 및 방 송장악·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선배는 입사 6년차인 1980년 언론 통폐합 당시 강제 해직됐다. 8년 만에 복직한 박 선배는 이듬해 노동조합 공정정보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일간 진행된 연합뉴스 첫 파업에 참여했다. 1993년엔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파업이 유난히 가슴에 박힐 수밖에 없다.

30일 노보 특보팀과 만난 박 선배는 “1989년은 각 언론사가 도미노처럼 파업을 결의하던 시절”이라며 “언론계 흐름을 탄 첫 파업보다 공정정보도 쟁취를 전면에 내건 지금의 파업이 훨씬 값지다”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 원로 언론들과 함께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 선배로는 유일하게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퇴직 후에도 언론노조에서 활동했

던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새 언론포럼’과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에 꾸준히 참여했다. 이들 단체를 주축으로 이번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히 워싱턴에서 부장급 특파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후배들을 직접 만나 사정을 듣고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 회사 망가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는가. 후배들이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

공정정보도와 인사권 문제는 박정찬 사장 때만 제기됐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 일부 보도는 문제가 심각했다.

- 연합뉴스 역사상 파업 47일 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19일간 이어진 첫 파업 과정에서 교훈을 찾곤 합니다.

1989년 당시는 신군부 통치가 끝나고 민주화 물결이 춤추던 때다. 파업을 하지 않으면 체면치레를 못하는 분위기가 언론계를 지배했다. 공정언론 쟁취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23년 만에 단행된 두 번째 파업은 조금 다르다. 노조는 ‘뉴스 Y’와 같은 대형 사업이 펼쳐진 시점에 파업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에 달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단행했겠는가. 선배로서 지속되는 파업 사태가 안타깝고, 하루빨리 회사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 간부 기수인 4-7기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 경우 노조가 승리한다 해도 회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사측이 4-7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사측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노조에 당부하고 싶다.

사측이 협상안을 받지 않는다 해서 돌아서기보다는 더욱 골몰해서 수정안을 제시해보길 바란다. 회사 정상화에 대한 노조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다고 양보할 수 없는 선까지 내줘서는 안 되겠다. 토론을 거듭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투쟁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

- 박정찬 사장의 4년 선배로서 사장을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박 사장은 능력 있는 기자고, 내가 참 좋아하는 후배다. 첫 파업 때는 노조 운영위원을 맡아 젊은 혈기로 열심히 활동했다. 그런데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일까? 박 사장이 23

년 만에 노조 투쟁의 대상으로 변모한 상황이 안타깝다. 타 기관에서 떨어진 낙하산 사장도 아니고 통신기자만 34년을 한 사람이 파업 사태를 만들었기에 더 그렇다.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1993년 노조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언론사 노조운동의 열기가 이미 식어 있었다. 집행부를 맡을 이가 없어 노조가 깨지자 다섯 기수 아래 후배들이 노조 부활을 부탁해 왔다. 위원장으로서 기금을 조성하고 노조 사무실 내에 비디오 대여점(지금은 DVD 대여로 바뀌었다.)을 만든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은 없다. 노조 명맥을 이어갔다는 의미는 있지만, 나를 포함한 선배들이 더 잘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든다. 후배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

노보만평

김토일



노조 “전사적 해결기구·거취투표 할 것”

총력투쟁 마무리집회...“이제는 박사장과 연합뉴스 구성원의 싸움”

연합뉴스 노조는 30일 조합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본사 앞 한빛공원에서 지난 3주간의 총력투쟁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열고 공정정보도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알렸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전사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며 향후 투쟁방침을 밝혔다.

공 위원장은 “현 상황은 노와 사가 아닌 박정찬 사장 한

“오만한 사장,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

총력투쟁 마무리하며 향후 투쟁방향 토론

연합뉴스 노조가 선포한 3주간의 총력투쟁 기간이 끝났지만, 많은 조합원은 이번 싸움을 승리로 끝내려면 오히려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30일 오전 사장실 앞 시위를 마치고 본사 서관 8층에 모여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해 특별토론을 했다.

무성의한 태도로 시간 끌기만 했던 박 사장이 27일 자신의 안마저 사실상 철회하며 노조를 무시·겹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터라 조합원들의 분노는 뜨거웠다.

한 조합원은 “사장이 오만해져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오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조합원도 “투쟁 방식이 온순하다 보니 사장이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토론에서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조를 짜서 온종일 사장실 앞을 지키며 집회를 하거나 출·퇴근시간 시내 중심가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선전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사장의 자택이 있는 동네를 찾아가거나 외부 행사에 따라가 시위

하는 등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5월1일부터 신입사원들이 노조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고 투쟁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사장이 4~7기 선배들의 중재안까지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사장이 그른 길을 가고 있다’는 지지와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회사에 남아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출입처에 직접 찾아가 파업 참여를 설득하는 등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또 투쟁의 외연이 넓어졌을 때 새로 합류한 이들과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초심을 생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져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탓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대화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먼저 끈을 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대표성 있는 이들이 사장과 모여 ‘끝장토론’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와 함께 대화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1면에 이어

명과 나머지 구성원 간의 대립 구도다. 지금은 박 사장 혼자 버티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천명했다.

이어 “비조합원들, 특히 중재안을 내 사태를 빨리 풀려고 노력했던 선배들을 중심으로 연합뉴스 전사적인 틀을 만들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사장이 말했던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거취 투표’를 추진하겠다. 본인이 안 한다고 하니 우리가 하겠다”며 “대다수 구성원의 뜻을 모아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Y 보도국 파견 조합원들이 나와 부서를 소개하고 투쟁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동철 조합원은 “보도국 파견자들이 (노조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사태가 TV개국과도 맞물려 있고 파견자들의 ‘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결국 연합뉴스 파업이 성공해야만 뉴스 Y도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최근 첫발을 얻은 사진부 임현정 조합원에게 한마음으로 축하를 보내기도 했다. 임 조합원은 “아이가 복덩이인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고 소식을 전해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파업투쟁 숨은 일꾼 ④ 영상팀

사장실 출근 저지투쟁 첫날. 모든 이들이 사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사장의 떨리는 뒷짐 진 손에 주목한 이들이 있었다. 연합뉴스 파업의 역사적인 찰나를 ‘매의 눈’으로 카메라에 담은 숨은 일꾼, 영상팀이었다.

영상팀은 연합뉴스 파업과 함께 투쟁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파업 활동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합뉴스가 사죄드립니다’란 영상을 제작한 민경락 사회부 조합원과 파업 전 영상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현우·왕지웅·이세영·임주연·조수현 조합원(이상 콘텐츠센터 편집팀), 이승환·김건태·김종환 조합원(이상콘텐츠센터 PD팀)이 함께했다.

영상팀이 찍은 영상은 유튜브에서 ‘yonhapnewsunion’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노보는 영상팀 가운데 왕성한 활동을 보인 3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민경락 조합원(사회부)** = 카메라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발가벗겨진 기분이다. 긴장과 불안을 감추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민 조합원은 이것이 영상의 힘이라고 했다.

“사람의 말은 머리를 한 번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말로는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죠. 긴장하고 초조하면 카메라 앞에서 그게 모두 드러나요.”

사장실 출근 저지투쟁 첫날 박정찬 사장도 그러했다. 뷰파인더 너머로 뒷짐을 진 사장의 손을 봤을 때 민 조합원은 직감적으로 사장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장의 흔들리는 눈빛과 바짝 마른 입술도 카메라에 담았다. 그 순간만큼은 사장의

말 한마디보다 이 같은 ‘디테일’이 진실에 더 가깝다는 생각에서다.

민 조합원은 23년 만에 이뤄지는 연합 파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만들었던 첫 번째 영상물 ‘연합뉴스가 사죄드립니다’를 시작으로 ‘연합뉴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파업 첫날) ‘용감한 연합뉴스’(뮤직비디오) ‘우리는흔들리지않습니다’(파업한달) 등 다수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들 영상을 편집하는 데만 평균적으로 1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 **왕지웅 조합원(편집팀)** =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련하게 일만 하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파업에 나섰겠느냐고.”

노조의 ‘말’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는 일꾼이 있다. 바로 편집팀의 왕지웅 조합원이다. 민 조합원이 대국민 홍보를 위한 외부용 영상을 제작 한다면 왕 조합원은 조합원들 간의 소통을 돕기 위한 내부용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특히 파업 행사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해 현장의 분위기를 궁금해하는 특파원과 지역본부 조합원들을 위해 일한다고 왕 조합원은 말했다. 목소리톤, 표정 하나하나까지 영상에 담아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외벌이’라는 현실 때문에 파업 동참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왕 조합원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국 교수의 인터뷰를 촬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처럼 한국언론의 자유가 땅에 떨어졌을 때 파업 한 번 하

지 않고 애써 현실을 외면한다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부끄러울 수 있겠구나’라고요.”

◆ **전현우 조합원(편집팀)** = 연합뉴스 파업 한 달 맛이 콘서트가 열렸던 지난 18일 밤. 시끌벅적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숙연해졌다. 조합원들의 정다운 얼굴이 상록수 노래와 함께 흘러나왔다. 현장에 모여 있던 시민과 조합원들의 마음을 울린 해당 영상은 바로 전현우 조합원의 손끝에서 나왔다.

“노래 가사 중에서 ‘우리 나갈 길 멀고 힘해도 께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푸름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전 조합원은 이런 믿음으로 되도록 조합원들의 밝은 표정을 영상에 담아내려고 애썼다.

전 조합원이 만든 ‘박정찬 사장의 황당 어록’ 영상물은 공개 당시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영상을 만들려고 전 조합원은 2009년 취임식, 시무식, 워크숍 영상을 샅샅이 검토했다. 특히 영상 중간마다 삽입된 깨알 같은 영화 명장면을 찾아내려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DVD 1천여장을 꼼꼼히 찾아보는 정성도 곁들였다.

끝으로 전 조합원은 연합뉴스 식구들이 파업 이후에도 ‘상록수’처럼 푸른 동료애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록수 노래를 들으면서 허한 마음을 달랠고 조합원들의 사진 속 모습을 보면서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파업 이후에도 모든 부서를 막론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연합뉴스가 됐으면 합니다.”